

코리아연구원 논평 2호(2010년 3월 16일)

2010년 중국 양회(兩會) 분석과 시사점

2010년 중국 정책의 기초를 확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4일 끝났다. 여타 국가들과 달리 중국이 최근 더 무게감을 가지는 것은 비단 13억 인구, 남한의 약 100 크기의 영토 등 하드웨어 측면 때문만이 아니다. 작년 세계적인 경기침체 하에서도 8%대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대변되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 등 소프트웨어 측면도 있다. 이번 양회에서 천명된 중국의 올해 국정 운영 방안 중 특히 한국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중국을 올 한해 기본적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의 8%대 경제 성장, 3% 대 물가상승, 1조 5억 위안 가량의 재정적자 규모 등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이끄는 방식의 성장 노선을 채택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양적에서 질적으로의 성장 방식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만이 중국이 아니다” 라고 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말했다. 매우 곤혹스럽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중국은 21세기 들어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실시이래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동반하여 나타난 지역 불균형 발전, 소득 격차, 도농 격차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출 지향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을 희생하면서도 사회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금 자신들의 강점인 정부 주도의 양적 경제 성장 노선으로 말이다. 몇 년간의 긴축 재정으로 인한 경제 내실화의 성과는 작년 한해의 노선의 이탈로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물가 상승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다시 노선을 바꾸고 싶으나 세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올 한해 더 작년과 같은 기초로 가기로 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부 한국 언론들이 말하듯, 중국이 질적 성장으로 방식을 변화했으며 따라서 내수에 대한 성장 기대가 높으므로 한국 기업들이 이에 예의주시해야한다는 단순 논리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내수 성장에 대한 부분은 중국은 이미 10여 년간 강조했던 부분이다. 문제는 이점이 중국의 지역, 도농, 소득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론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에 나서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막연하고, 성급한 긍정이나 기대는 금물이다. 더구나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은 여전히 높은 시장 진입 장벽으로 인해 가전이나 생필품 등 일부 제한된 영역에 불과한 실정이

다. 한중 FTA를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다른 국가보다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서 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연초부터 미국과 구글사태, 타이완 무기판매,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위안화 절상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이번 양회를 통해 타이완 무기판매와 달라이 라마 방미 허용에 대해서는 주권과 영토안정을 침해했다고 기존 입장 그대로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반박을 시도했다. 먼저 전 세계적 경기 침체는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작년 주요국의 대 중국 수출에 대한 통계 수치를 들어 분명히 했다. 오히려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국으로서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미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절상이 이뤄지고, 일본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간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국내적 측면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기본적으로 지속되리라는 판단아래, 대폭적인 절상은 없고, 현행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출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서 중국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세계 경제와 연동된 중국 경제로써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위안화의 절상은 아시아 주요국 통화의 상대적인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와서 한국의 수출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오히려 위안화 절상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오히려 신속하게 불확실한 달러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 및 수립해야 한다. 시급한 과제로 외환시장 및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을 수립 및 추진, 아시아 지역 내의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위안화의 거래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현재의 원/달러 거래 중심인 외환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 국제통화질서가 달러화 및 유로화의 이원적 구조에 위안화가 가세할 전망이므로 외환보유고에서 통화별 보유 비중 적정화를 제도화해한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현시점에서 진지하게 중국과의 무역결제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각각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2010/03/16)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 후원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